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necessity of policy Public Design

오성진

경민대학 산업디자인과

Oh, Sung-Jin

Dept. of Industrial Design, Kyungmin College

• Key words: Public Design, Design policy, Street Furniture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디자인이 우수해 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공공디자인의 전반적 수준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공공 시설물만 보아도 디자인이 얼마나 낙후 되어 있는 가를 알 수 있다. 도로에는 제멋대로의 모양새를 한 버스, 택시가 활보하고 무성익한 도로 교통 표지판이 걸려있다. 도로 변에 세워져 있는 버스 정류장과 가로등, 휴지통, 벤치 등은 디자인의 연관성이나 통일감은 전혀 찾아 볼 수도 없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컬러와 디자인, 기능과 아름다움은 고려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감성과 문화의 시대에 일반 대중들의 시각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이미 국민들은 상당한 수준의 디자인 인목을 갖추었으며, 2004년 1월 1일 시행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시스템으로 건교부가 내놓은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은 네티즌과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다. 또한 2월 23일에 열린 축구 대표팀 유니폼 패션쇼 이후 유니폼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이러한 최근의 사건들은 국민들의 디자인 의식을 정부에 일깨워준 계기라 할 수 있다. 그 중 전 국민의 반발로 결국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게 만든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의 good case와 bad case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공디자인의 필요성과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공공디자인의 개념 및 분류

인간이 소박한 원시공동체 속에 살고 있을 때에는 다만 자연과 관습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단세포사회인 가족도 그들이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여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서부터는 사회생활을 합리적으로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를 들면, 관개용 운하 등의 공공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농지의 생산력을 높이게 되었다. 더욱이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고, 기능이 한층 분화된 다세포 사회가 발생되면서 개인적 생활의 장과 병행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여러 장치나 장비를 보다 합리적으로 계획해야만 하였다. 여기에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생겼다.

앞으로의 제3차 산업도시의 상징적인 공공디자인은 선진국에 있는 거대한 빌딩의 경우처럼 초가구(超街區)·초고층(超高層) 부지 내의 공공공지, 자동차 처리 시스템 등, 서유럽형 재개발의 전형적 모티프를 채용하게 될 것이다. 마스터 플랜에 의

하여 이런 종류의 시설과 보조를 갖춘 통근철도계획, 그 밖의 교통시설의 시스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그 밑에 지하철역을 함께 시설한다는 식의 해결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도와 보도로 나누는 시스템, 녹지대와 가능하다면 맑은 물이 흐르는 운하망을 도시에 증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혹은 하나의 큰 빌딩 자체가 소도시적인 기능을 태내화¹⁾한 공공디자인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장소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 대한 공중도덕과 생활감정을 잘 인도해야 한다.²⁾

[표 1] 공공디자인의 분류

환경적 시설	도로시설	
건축물, 도로, 운하, 공원, 산책로등	사람을 위한 시설물	광고, 게시판, 교통표지, 신문광고, 벤치, 버스, 택시정류장, 지하철입구, 공중화장실, 공중전화, 가로등, 쓰레기통, 재떨이, 자동판매기, 우체통, 화분, 가로수등
	자동차를 위한 시설물	신호등, 교통표지, 파킹미터, 가드레일, 교통관제탑등

3. 공공디자인으로서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사례

3-1. 자동차 번호판

자동차의 신분증인 번호판을 세계 최초로 달도록 의무화시킨 곳은 프랑스이다. 1893년 파리경찰이 시속 30km이상인 자동차는 철판에 차주의 이름과 주소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차의 앞 왼쪽에 달도록 했다. 이후 1900년부터 유럽전역에서 시행되었고 리셀백작의 자가용 '네피어'호에 달았던 영국번호판 제1호는 오래 보관되어 오다가 자선경매에서 1973년 1만4천 파운드에 팔려 가장 비싼 번호판이 되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번호판 중에도 굉장히 비싼 것이 있다. 투기가 심한 홍콩사람들은 '건강하다', 번창하다, '뺨쳐나간다' '발전 한다'라는 뜻을 가진 3과 8을 좋아한다. 그래서 3과 8이 가장 많이 든 번호판이 최고의 인기이며 엄청난 값으로 거래된다. 지금까지 가장 고가로 경매된 것은 103만 홍콩달러에 팔린 3388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04년 초부터 '오리' 자동차상회라는 승합자동차회사가 처음으로 전국 9개 노선을 허가 받아 자동차업무를 시작했다. 초기의 번호판은 검은 색 철판

1) 예를 들면, 가로에 해당하는 실내의 복도를 걸어갈 때, 때로는 녹색의 전망이 전개되는 따위의 극적인 연출까지를 갖춘 공공디자인
2) <http://100.naver.com/100.php?id=15767>

에 흰 글씨로, 오른쪽에는 한문으로 위에서 아래로 등록한 도시이름을 내려쓰고 왼쪽에는 경찰에서 준 두 자리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해 처음에는 앞에만 달았다고 한다. 자동차용 번호판의 모양은 거의 대부분 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개가 알루미늄 판으로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등지의 번호판 크기가 비슷하고 유럽 지역은 좀 긴 장방형으로 되어 있다.

비슷해 보이는 크기의 번호판이지만 우리나라의 것이 승용차용으로서는 가장 큰 (335×170mm)이며, 일본의 것 (330×175mm)로 그 다음의 크기, 그리고 미국의 것이 12인치(304.8mm)에 6인치(172.4mm)로서 가장 작다³⁾.

3-2. Good case 미국의 디자인.

미국의 자동차 번호판은 1900년대 초반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주 별로 번호판을 처음 발행한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나며, 번호판의 모양과 형태도 서로 달라지고 있다. 각 주에서는 자기 주를 상징하는 사물이나 동물을 번호판에 그려 넣기도 하였고, 주의 슬로건을 새겨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표 2] 미국의 각 주별 번호판 형태에 의한 분류

주	Colorado주	Wyoming주	Alaska주	Pennsylvania 주
형태	산모양	Cowboy 모양	곰그림	지도모양

미국의 각 주별 번호판을 형태에 의해 분류를 해보면 표2와 같으며, 같은 주 내에서도 발행시기에 따라 번호판의 모양과 형태, 내용이 다양하다. 미국의 디자인은 다양성과 심미성을 가지면서 기능적인 측면도 잃지 않았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자동차 번호판을 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공짜로 이러한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번호를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정한 금액을 추가로 지불하면 이와 같은 개인 자동차 번호판(Personalized License Plate)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색상 구분에서는 미국은 시대별로 색상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곳에서는 70년대에는 검은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써 번호판을 칠했으며, 70년대에는 파랑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를, 80년대에는 백색 바탕에 숫자는 짙은 청색을, 'CALIFORNIA'라는 지역명칭에는 빨간색을 썼다. 90년대에는 80년대와 같지만 CALIFORNIA 글씨를 인쇄체에서 필기체로 바꾸었다. 번호판의 내용은 미국은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7자리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3MAB824등과 같이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특정한 이름이나 내용을 넣을 수도 있다.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내용의 번호판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비교적 공통적으로 선호되는 것은 'IMGR8' 이라는데 이것의 발음이 "I'm great." 와 동일하게 읽힌다고 해서 이 번호가 인기 있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성 중에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것은 번호판의 크기다. 1950년대 12 X 6 인치로 통일 된 미국의 번호판의 크기는 현재에도 변하지 않고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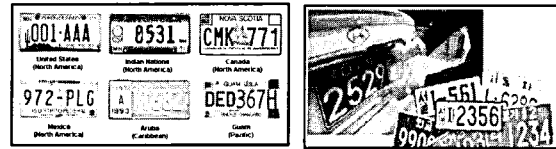
3-3. Bad case 한국의 디자인.

초창기 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에 적용된 녹색의 자동차 번호판

3) 구상, <자동차 이야기>, 조형교육, 1999.
 4) http://myhome.shinbiro.com/%7Edwcij/auto/sen_license.htm
 5) <http://www.okmi.x-y.net/cultures/licenseplate.htm>

은 1974년 최초의 한국형 자동차 '포니'의 디자인이 이탈리아 디자이너 주지아로에게 넘어간 시기에 이탈리아 도로표지판(이탈리아 국가의 녹색)에서 색을 따왔다고 알려져 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번호판은 기본적인 가독성과 심미성, 그리고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지역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묶어 관리하는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기존의 번호판이 자칫 지역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매년 번호판 변경에 소요되는 3백억원 이상의 비용을 줄여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합리적인 취지였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디자인이다. 천편일률적인 녹색 바탕에 숫자만 덩그러니 들어간 새 번호판은 멋스러움도, 우리나라의 취향도, 다양성도 없다. 그저 칙칙한 식별용 표지판이라는 혹평을 받았다. 건교부는 지역이 빠지고 남은 번호판 공간을 뚝뚝한 글씨로 채운 새 번호판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번호판은 전자에 언급 했듯이 기본은 무시한 채 무조건 눈에 띄어야 한다는 기능성만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새 번호판은 글씨가 커지면서 '1' 등 가로 폭이 좁은 숫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백이 커져 글씨가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거나 '0'과 '1'이 함께 있을 경우 한글 '이'자로 보이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새마을 운동의 깃발을 연상케 하는 컬러에 가장 기본적인 번호 식별마저도 모호해진 폰트 디자인으로 졸작을 선보인 우리 정부와 비교할 때 번호판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문화는 참으로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림 1] Good case

[그림 2] Bad case

4. 결론

시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 수준이 고조 된 요즘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는 시민들의 비판은 공공디자인에 대한인식을 환기시킨 좋은 계기가 되었다. 자동차 번호판은 시작에 지나지 않으며, 아직도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공공디자인들이 매우 많다. 이제 서둘러야 할 일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는 물론 정부에 의해서 공공의 시설에 대한 재 디자인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디자인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향후 발전된 디자인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로 디자이너와 각 교육기간 및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비판의식이 공공디자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조원철, <자동차 디자인 A to Z>, 예경, 2003.
- 구상, <자동차 이야기>, 조형교육, 1999.
- <주간 동아>, 동아일보, 2004. 04
- <월간 디자인>, 디자인하우스, 2004.02
- <http://www.okmi.x-y.net/cultures/licenseplate.htm>
- <http://myhome.shinbiro.com/%7Edwcij/auto/>
- <http://www.worldlicenseplates.com>